

바른미래 분당 초읽기 ... 대안정치연대·무소속과 결합

호남 중심 제3지대 신당 창당 급물살 타나

바른미래 비당권파 신당 창당 후 한국당과 공조 나설 듯
박지원 의원 "손학규 대표와 이심전심" ... 11월 신당 구체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구성, 사실상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특히, 제3지대 신당이 호남 민심의 지지를 얻는다면 내년 총선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탈당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들은 탈당을 통해 보수 신당을 창당한 후,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과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즉 '선거법 개정 반대'를 지렛대 삼아 향후 보수 재편 과정에서 한국당과 통합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반면,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은 민주

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와 무소속 의원들과의 결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3지대에서 모여 중도·개혁 정당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최근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무당층이 3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도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손 대표 및 호남계 의원, 대안정치 일부 의원들은 최근 활발하게 물 밑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와 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 취향식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손 대표와 박 의원은 제3지대 신당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손 대표와)이심전심 아니겠냐"며 "10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제3지대 신당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도·개혁진영의 제3지대 신당이 균형을 잡아야 나라도 살고 호남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정치도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상황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을 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창당준비기획단 조직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인근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끝마친 뒤 "바른미래당 호남세력과 민주평화당 관망파, 무소속 세력에게 말한다"며 "제3지대 신당을 위해 어떻게 단결하고 통합할지 토론하자"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일 저녁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만찬을 하며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성열 대표도 최근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등과 오전 함께 하며 제3지대 신당에 함께 줄 것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타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무소속 의원들도 제3지대 신당이 구체화될 경우, 함께 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신당의 구심점을 이룰 인물을 찾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피로감을 느낀 민심이 제3지대 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호남 특점 구도에 대한 거부감과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갈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전선의 근본적 변화 등 내년 총선 구도를 다시 그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의 핵심은 호남 민심의 눈 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총선은 대선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3지대 신당이 어느정도 정치적 비전을 제시한다면 지난 총선에서의 녹색 바람과 같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일 오후 서울 시청 방향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정당 관계자, 범보수단체 회원, 기독교 단체 회원 등이 각각 개최한 여러 건의 집회 참가자들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전남, 태풍 '미탁' 피해 주택 83동 침수

벼 1760ha 침수·쓰러짐 ... 부산 등 전국서 6명 사망·4명 매몰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6명이 사망했고, 부산에서는 산사태로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확철을 앞둔 농어촌지역에 재산피해가 집중됐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6명이다. 오전 9시 6분께 경북 울진군 울진읍

한 주택이 붕괴하면서 60대 부부가 매몰돼 사망하는 등 2~3일 사이 경북·강원에서 사망자가 잇따랐다. 실종자도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오전 9시 5분께 사하구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인근 주택과 식당 건물을 덮쳤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주택에 3명, 식당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을 스쳐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주택 침수, 벼 침·관수 및 쓰러짐, 도로 비탈면 유실, 저수지 및 하천 제방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피해 상황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 규모를 잠정 집계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주택 침수 83동, 벼 침·관수 914ha, 벼 쓰러짐 846ha 등의 피해가 잡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비탈면 21개소가 유실되고, 저수지 1개소와 하천 1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수산 중·양식시설은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는 즉시 본격적으로 피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도소방본부에는 이번 태풍에 34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인명구조 1건, 도로 장애물 제거 등 안전조치 308건, 배수 지원 35건 등의 활동을 펼쳤다. 2일 낮 12시께 고흥 도양읍 도화면에서 주택이 침수돼 4가구 9명을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 조치했다. 이날 오후 9시 13분께 해남 육천면에서는 아영 중 물이 범람하면서 2명이 고립돼 소방대원이 출동, 신속히 구조했다.

광주에서는 도로 침수 16건, 가로수 쓰러짐 2건 등 총 30여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연합뉴스

조국 부인 정경심 8시간 조사
검찰, 건강 문제로 중단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8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후 5시 20분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비공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 교수 요청으로 조사를 종료한 시간은 오후 5시~5시 10분께다. 정 교수 소환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검찰 출석 장면은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정 교수는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연합뉴스

범보수 서울 광화문 대규모집회

주말엔 촛불집회 '진영 대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전적인 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특히 주말인 오는 5일 서초동에서 2차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것으로 예상돼 '검찰개혁' 대 '조국 파면' 양 진영 간 대결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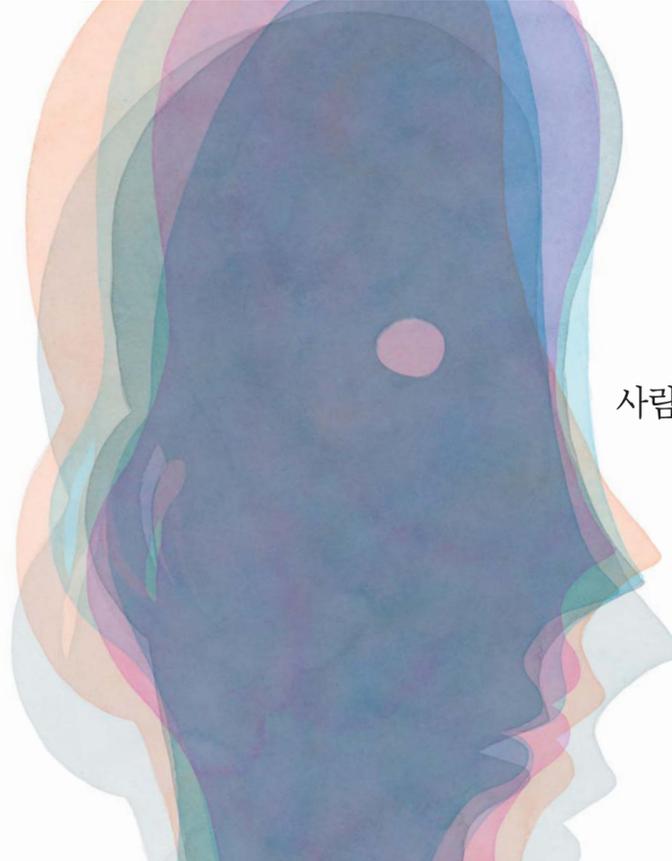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날 같은 시간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당은 집회 참석인원을 300만명 이상으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파탄 내고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

다.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조국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교보빌딩 앞에서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총괄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를 열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박 전 대통령의 실수도 있었지만, 보수우파 진영 내의 분열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탄핵을 사이에 두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시간도, 그럴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공화당은 낮 12시 30분부터 송례문 앞에서 '문재인 퇴진 태극기 집회'를, 전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오부터 서울광장 서편에서 전국기독교연합 기도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9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9.7-10.31

행사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재)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디자인센터